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음성, 양성, 확진자, 자가격리, 방역, 마스크, 거리 두기... 우리들 일상을 뒤덮어 버린 단어들입니다. 함성으로 가득 차야 할 야구·축구 경기장이 텅 비었습니다. 공연장과 국제선 공항 청사에도 인적이 끊겼습니다. 오고 가는 거리는 마스크로 뒤덮였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에 갇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픈 사람을 응원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새싹과 원색의 꽃망울을 앞세운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계절의 흐름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글 전수영 기자



‘달빛동맹’ 광주의 응원

3월 5일 광주 북구 청사에서 구청과 북구의회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철홍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4월 30일)을 앞두고 3월 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연등이 걸렸다.

[이지은 기자](#)



대구에 찾아온 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 15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교대 근무에 나선 의료진이 보호구 착용실로 향하고 있다.

윤동진 기자



소와 매화

경칩(驚蟄)인 3월 5일 경남 의령군 한 농가에 매화가 활짝 폈다.

김동민 기자



꽃 위에 내린 눈

3월 16일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한계령 도로변 생강나무 꽃송이 위에 밤새 내린 하얀 눈이 쌓여 있다.

이종건 기자



출근길, 마스크 행렬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3월 12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박동주 기자

텅 빈 관중석

코로나19 여파로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이 1982년 프로 출범 후 처음으로 연기된 가운데 3월 16일 텅 빈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자채 행백선을 하고 있다. KBO 이사회는 당초 28일이던 프로야구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김도훈 기자

● **멈춰 선 김포공항 국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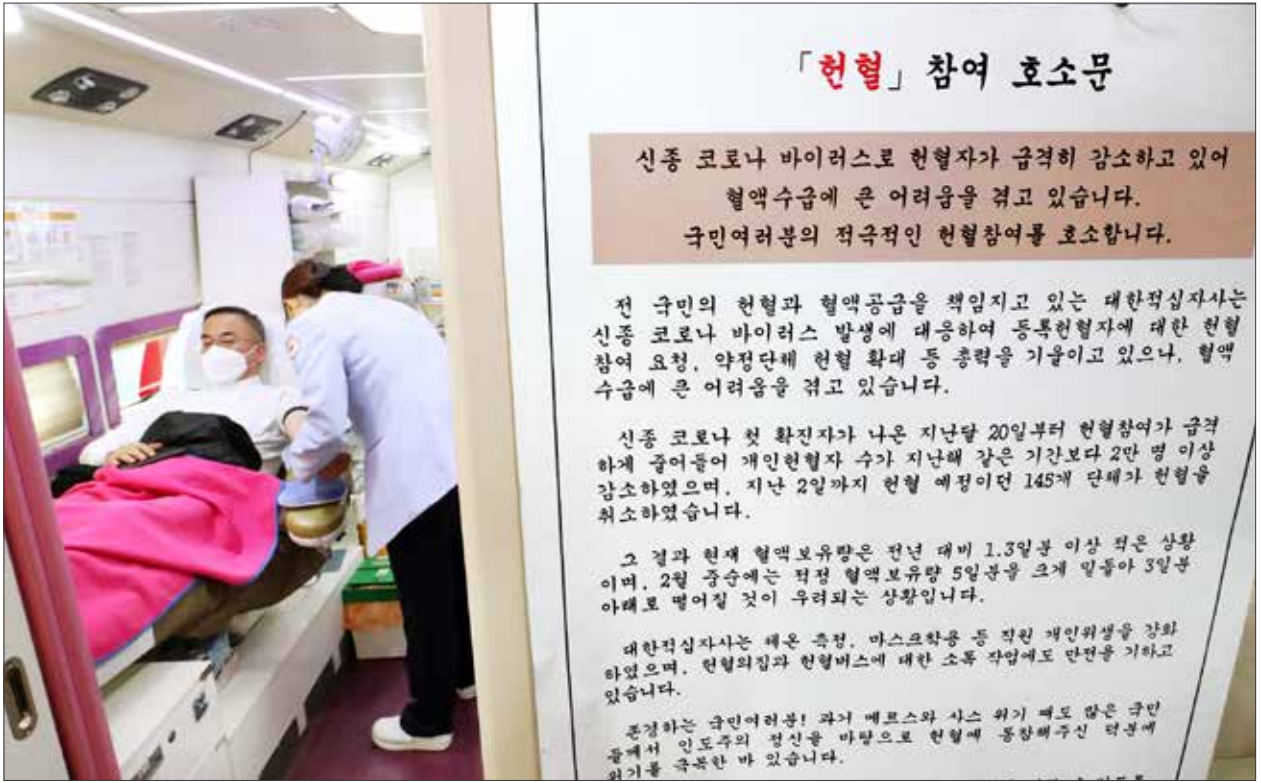
3월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도착 알림판이 텅 비어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는 국제선 항공기가 한 대도 운항하지 않았다.

서명곤 기자

연극 공연도 온라인으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무관객으로 온라인 생중계된
연극 '브라보 엄사장'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홍기원 기자



혈액이 부족해요!

3월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 해결에 동참해 헌혈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3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앞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단계별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

[김도훈 기자](#)



입대도 드라이브 스루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입영 장병을 태운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6사단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입영을 진행했다.

[양지웅 기자](#)





열차 내 거리 두기

한국철도(코레일)가 모든 승객에 대해 창가 좌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첫날인 3월 3일,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부부가 떨어져 앉아 손 소독제를 건네고 있다.

[임한정 기자](#)



도서관? 구내식당!

3월 13일 부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공무원과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조정호 기자](#)



마스크, 일상이 된 기다림

3월 3일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홍해인 기자](#)



마스크 5부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3월 9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류영석 기자](#)



법정도 예외 없는 방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1일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내 법정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홍기원 기자](#)



치료받으러 가는 길

3월 8일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 안으로 옮기고 있다.

[신준희 기자](#)



잠깐의 휴식

전국에서 코로나19의 방역과 진단, 치료는 연일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잠깐의 휴식이 의료진 등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랄 뿐이다. 위부터 울산 아파트 단지 방역에 나선 북구청 직원, 대구시 대구스타디움 앞에서 구급차 방역 중인 방역 요원, 서울 잠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김용태·김주성·임헌정 기자](#)

